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전략 소식지

5권 01호
2018년 01월

12월 활동

미 대북특별정책대표,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정책대표가 12월 20일 유엔군 사령부(UNC) 마크 질레트 참모장의 주최 하에 JSA를 방문했다. 비건 대표는 지난 9월 평양에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포괄적 군사 합의에 따라 바뀐 상황들을 시찰했다. 변경된 사항으로는 비무장 지대의 지뢰 제거, 경비 철수, 초소 폐쇄와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 근방에서의 포병훈련 및 기타 훈련 전면 중지 등이 있다.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을 계속 따르면서 최근 일련의 변화를 전적으로 지지해오고 있다.

유엔사 사찰 기념식

한미연합사령부(CFC) 김병주 부사령관; 박정환 육군 제1보병 사단장; 유엔군 사령부 포병 대대장 선 모로우 육군 중령; 레이먼드 헨드릭 부대 선임 상사와 한국의 불교 지도자들은 12월 23일 캠프 보니파스에 있는 사찰의 지명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법당은 "유엔사 사원"이라 명명됐고, 전국적으로 승인된 신행 활동 장소가 되었다. 이 행사는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희망하는 상징으로써, UNC 회원국과 한국 간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실탄 정확도 선발 시험 훈련

12월 3일부터 19일까지 14대의 M1A2 탱크를 지급받아 포화, 이송하여 캠프 케이시에서 미 육군 사전배치 물자 불출훈련에 돌입했다. 한국에 순환 배치되어 기갑 전투여단으로 책임을 맡은 지 한 달 여가 지나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기능 보장을 위해 무기 발사가 포함됐다. 제3기갑사단 제3기갑여단은 1월에 미 육군 사전 배치 재고의 유효성을 지속하기 위해 15개 중대의 기갑 탱크를 추가로 지급받을 예정이다.

방문객

지난 달 사령부를 찾아주신 주요 방문객입니다.

- 존 D. 알렉산더 해군중장, 미 제3함대

에이브럼스 사령관, 오산 공군 기지 전장 순환 지휘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은 공군 자산의 준비태세를 평가하고 다가오는 미 의회에서의 증언을 준비하기 위해 12월 20일 미 공군 중장인 케네스 윌스바흐 7공군사령관의 주최 하에 오산 공군 기지에서 전장 순환을 지휘했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제607항공작전센터 및 임무 파트너의 합동사격통합을 직접 확인했으며, 제5정찰비행대대, 제51전투비행단, 제35방공포여단, 제607항공작전본부; 그리고 제694정보전대를 방문했다. 각 소대는 작전 개요를 보고하고 준비 태세를 보여주는 훈련을 취했다. 사령관은 미국과 연합군 항공병들이 서로 다른 유형의 첩보와 자료 등을 두고 어떻게 협력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다. (아래 사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 미 공군 중장 케네스 윌스바흐 7공군사령관, 제이슨 달 미 공군 대위, 그리고 에이브럼스 대장이 비행을 앞둔 U-2 드래곤 레이디 정찰기의 조종사와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U.S. AIR FORCE PHOTO BY STAFF SGT. TIMOTHY DISCHINAT

- 사령관, 12월 3-5일
- 필립 G. 소이어 해군중장, 미 제7함대 사령관, 12월 3-5일
- 다시 로저스 중장, 국방위협감소국 부국장, 12월 3-5일
- 카즈키 야마시타 해군중장, 일본해상자위함대사령관, 12월 3-5일
- 마크 리퍼트 대사, 전 주한미국 대사 겸 보잉 외국정부 업무담당 부사장, 12월 9-15일
- 루이스 크라파로타 중장, 미 태평양 해병부대 사령관, 12월 11-14일
- 에드워드 달리 중장, 미 육군보급사령부 부사령관, 12월 12-13일
- 백선엽 예비역 대장, 한국군 최초의 4성장군, 12월 14일
- 마이클 다니허, 주한 캐나다 대사, 12월 18-19일
- 티모시 P. 브로글리오 대주교, 미국 군종 대교구장, 12월 18-24일